

광남시론

박찬용

동일부 통일교육위원·정치학 박사



북한, '레짐 체인지'와 평화통일의 갈림길

서 가장 골치 아픈 존재가 자신의 말을 사사건건 듣지 않는 북한의 김정은이다.

지난 2013년 김정은은 친중파의 거두 장성택을 잔인하게 숙청했고 4년 뒤에 정치적 라이벌인 이복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독살했으며 중국이 견제하는 러시아와 군사동맹까지 맺음으로서 시진핑을 대노하게 했다. 지난 2015년에 시진핑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을 중국과 미국, 러시아와 일본 등 4개국이 분할 점령해 통치하는 계획을 제시한바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의 동북아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합동으로 합의한 북한에 대한 북한 김정은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신변위험을 느낀 김정은이 금년 4월 이후 트럼프의 중국 방문길에 원하면 원치않던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오사마 빙 라덴을 비롯한 핵심지휘부 제거작전 등을 통하여 성공시키며 최첨단 정보전 능력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번 체포사건은 이전의 작전들과 성격이 다르다. 개인이나 계

밀리조직이 아니라 주권국가의 현직 지도자를 상대로 특수부대가 작전을 순식간에 종결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의 정보, 군사적 역량수준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장면이고 북한 김정은과 같이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간단히 서늘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작년 10월 경주 APEC 행사 전후에 트럼프는 김정은과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끝까지 김정은의 응답이 없었다. 이것은 트럼프 인내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트럼프는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승인과 군산 기지에 최첨단 암살무기인 MQ9리퍼 부대를 창설하는 등

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 동북아에

는 조직화 된 내부 저항세력이 없는 북한의 특성상 이라크식 체제 전환은 현실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수반한다. 그러나 지도자만 제거하고 기존 기득권층을 활용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미국이 북한에 이런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단기적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엘리트 구조 전체를 뒤엎지 않는 한 비교적 빠른 안정 확보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성립한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에 미련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가 '처음에는 강하게 맡은 하는데 결국 밤을 빼다'는 타코(TACO)가 아니라 '까불면 다친다'(FAFO)는 트럼프의 힘을 직접 목격한 상황에서 미국과 맞설 경우 김정은은 체제를 향한 미국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안절부절하고 있다.

오는 4월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는 다시 한번 김정은과의 만남을 시도할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지난해 10월처럼 트럼프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트럼프는 언제든지 군사력 카드를 사용해 북한을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시킬 수 있다. 규범이나 맡보아 힘으로 앞서는 시대에 미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핵 카드는 억지력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던지는 경고는 명확하다. 김정은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광주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반드시 성공을

광주에 조성될 국가전략 프로젝트인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에 담아야 할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시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사전기획 용역 착수보고회와 기획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광주시와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공동 사전기획을 할 정도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광주 미래자국가산업단지 99만1735m² 일원에 미래형 신도시를 조성,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AI를 결합해 개발·실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이곳에서는 자율주행차와 도심 상공에서 사람·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교통 수단인 도심항공교통이 지상과 상공을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AI로봇이 기사·물류를 담당하는 첨단 모빌리티 생태계가 구현된다. 또 모든 건축물은 도로와 도심항공교통 기체의 이·착륙과 승객 탑승, 충전·정비 등을 담당하는 전용 시설인 베티포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입체 구조로 조성되며, 지하에는 물류와 로봇 이동 통로를 구축해 무인 물류 체계를 완성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담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국토교통부, 대학 교수, 네이버클라우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기본 구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이들은 공동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광주의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사업이라며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해 AI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핵심 기업인 앵커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또 광주의 AI집적단지, 미래자국가산업 기반, 에너지 산업 인프리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국토부·산업부 국정과제와 과기정통부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미래 자동차 산업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기본 구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5월까지 기획위원회와 함께 국내외 사례 분석, 프로젝트 비전 및 목표 설정, 규제혁신 방안 마련,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 올 하반기까지 기본 구상과 마스터플랜을 마련. 2028년 착공하기로 했다.

정부와 광주시는 시각 단계인 이 프로젝트가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도시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전남 동계전지훈련 성지 각광받는 이유

전남도가 겨울철, 전국 각지 선수단이 몰려드는 전지훈련의 성지가 되고 있다. 온화한 기후와 우수한 체육 인프라, 체계적인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3박자가 척적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전남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2.6도로 전국 평균 기온 0.4도보다 2.2도 높다. 또 적설량도 그리 많지 않아 훈련 중단 위험이 낮은데다 KTX,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수도권과 영·호남권에서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돼 있다. 이 때문인지 동계 훈련 기간만 되면 각 시·군에는 축구, 야구, 육상,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단이 대거 방문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시·군은 종합운동장, 전천후 훈련 시설, 웨이트 트레이닝장 등 체육 인프라는 물론 숙박·식사·교통 연계 지원 등 맞춤형 전지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훈련장 대관료 감면, 지역 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온화한 기후와 다행도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춘 강진군에는 이번 겨울, 불링, 배구, 배드민턴 등 6개 종목 200여 개 팀, 연인원 3만8000명이 평균 9일간 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육상·야구 등 4개 종목 35개 팀, 연인원 1만1000여명이 훈련하고 있는 목포시에는 이번달 말까지 하기 등 3개 종목 15개 팀, 3000여 명이 추가 방문한다.

해남군은 12개 종목, 연인원 4만1000여명을 유치할 계획이며 구례군은 축구 38개 팀, 태권도 19개 팀, 씨름 14개 팀 등 4개 종목 73개 팀, 연인원 1만6700여명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동계전지훈련은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선수단 체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숙박, 음식, 교통, 소비가 모두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비수기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도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간 전지훈련을 유치해 943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는데 이 중 동계훈련 기간(2024년 11월~2025년 2월) 예상 연인원 35만명을 유치해 360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선수단 등이 만족하는 환경을 조성해 겨울 훈련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바란다.

기고

정양수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



광주·전남통합, '도민 행복' 최우선 가치 돼야

거제자 뜨거운 관심의 표현이다.

이러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전남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을 통해 도민의 뜻을 정책에 담아내고자 한다.

첫째는 '투명한 정보의 공유'이다. 통합이 내 삶과 직결된 예산, 복지, 공공서비스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나의 일상이 어떻게 더 편리해지는지를

둘째는 '소의형 소통의 장'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현장의 생명력을 담지 못한다. 예산과 예산의 질문을 던져보면, 예산과 예산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소수 전문가의 목소리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 특별법의 세부 조항과 행정 체계 설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셋째는 '시·군 중심의 실무형 통합'이다. 광주의 인프라와 전남의 자원이 결합해 만들어낼 경제적 시너지는 단순한 수치상의 성장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그 결실이 결국 도민 개개인의 지갑을 채우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고향을 지키며 꿈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환원되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

무엇보다 행정통합의 지향점은 명확해야 한다.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달성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 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전남의 산간벽지나

도서 지역 등 가장 낮은 곳과 소외된 곳까지 통합의 온기가 끌고fter 퍼져야 한다.

지리적 거리가 행정 서비스의 수혜 거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심하고 두터운 정책을 펼쳐야 한다.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행정을 통해 모든 도민의 행복지수가 고르게 높아지고,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돼야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 산업과 문화, 생활권을 공유해 온 '한뿌리 공동체'이다. 임진왜란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고비 때마다 서로를 지탱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왔다.

이제 행정의 벽을 허물어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미래전략으로 나아가려는 이 시점에서 서 가장 강력한 자산은 막대한 예산이나 정교한 법률이 아닌, 바로 '시·도민의 신뢰'이다. 행정의 규모를 키우는 외형적 성장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그 커진 터리 안에서 모든 시·도민이 소외 없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제 행정통합의 진짜 주인은 시·도민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행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320만 시·도민 모두가 마음의 손을 맞잡아주시길 소망한다.

보다 '연대의 복원'에 있다. 현혈의 주체가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순간, 나눔은 캠페인 아니라 문화가 된다.

앞서 혈액원에서 밝혔듯이 혈액 수급에 대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수년간 혈액 수급의 주요 동력이었던 학교·군부대 단체 혈액이 줄었고, 외부 봉사활동이 대입 전형에서 제외되면서 개인 혈액 참여도 위축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인구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분명한 건 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라, 쿠키 하나를 매개로 한 일상의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차기운 혈액팩 뒤에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들이 이어진다면, 광주·전남의 혈액 나눔은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달콤함은 입에서 사라지지만, 함께했다는 기억은 오래 남는다. 이 아름다운 나눔의 풍경이 특정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 되길 기대한다.

취재수첩

혈액 나눔의 상징이 된 '두촌쿠'

임영진

사회부 차장



하루

평균 500명 남짓이던 현혈자는 1000명을 훌쩍 넘겼고, 여수·순천 등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했던 지역에서도 변화의 기미가 뚜렷하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 효과였다.

그만큼 현장 분위기도 뜨거웠다. "쿠키는 안 받아도 되니 현혈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시민, "차라리 우리가 쿠키를 사서 나누고 싶다"며 먼저 연락해 온 동네 카페들, 현혈이 어려운 사람들은 기부와 흥보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혈액은 저장 기간이 짧고, 수급은 늘 불안정하다. 그래서 혈액 위기는 반복된다.

그럼에도 이번 반등이 의미 있는 이유는 '숫자 회복'

보다 '연대의 복원'에 있다. 현혈의 주체가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순간, 나눔은 캠페인 아니라 문화가 된다.

앞서 혈액원에서 밝혔듯이 혈액 수급에 대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수년간 혈액 수급의 주요 동력이었던 학교·군부대 단체 혈액이 줄었고, 외부 봉사활동이 대입 전형에서 제외되면서 개인 혈액 참여도 위축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인구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분명한 건 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라, 쿠키 하나를 매개로 한 일상의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차기운 혈액팩 뒤에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들이 이어진다면, 광주·전남의 혈액 나눔은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달콤함은 입에서 사라지지만, 함께했다는 기억은 오래 남는다. 이 아름다운 나눔의 풍경이 특정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 되길 기대한다.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박형인	차재진	사장 민경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경 제 부 370-7040	논 설 실	370-7200	경 제 부 370-7020	일 원 실	370-7000
우편번호 61234	산 압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사 회 부 370-7030	사 암 국	370-7070
대표전화 (062) 370-7000	문화체육부 370-7234	광 고 국				